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26차 정기
일시	18. 09. 03 18 : 3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0/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O	O			O	O	O	O		O	O	O	O

❑ 보고 안건

1. 행사 보고

: 개강인사 완료. 우천으로 15시 조기 종료.

❑ 논의 안건

1. 예산자치제 논의

: 예산의 운영 관련, 지속적인 예산자치제 할당분 이월금액 증가로 인한 문제 논의.

–인문대학: 합리적인 선상에서 지원 금액을 줄이는 것이 어떠한지? (총학생회: 좋은 생각이나 중운위 등 회의체에서 합의 필요.) 학생회비와 예산자치제 계좌 분리의 필요성.(동아리연합회: 동아리 자치예산 분배의 경우에도 계좌는 함께 사용하나 내역이 분리되어 있음. 계좌 분리가 아닌 회계 분리가 필요.)이월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좋을 것. 예산자치제 할당 금액의 이월이 되지 않는다면 총학생회비의 유동성이 커질 것. 정밀한 심의를 통해 예산자치제 할당분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 필요.

–총학생회: 지난 전학대회, 융합공학부에서 예산자치제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제의.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된 금액을 학생회가 변경될 때마다 현재 작년에서 넘어온 융공에서 예산자치제 한 학기마다의 상한선을 작성하여 진행할 것 제의. 현 추세에 따르자면, 지금까지 2학기 예산자치로 나간 비용은 약 100만원을 밑돎. 전 학생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만큼, 지원기준의 완화는 현실적인 한계 존재. 단위의 구성 또는 성격과 상관없이 모든 중앙인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열려있어야 하는 점, 중복지원은 불가한 점 등 심사기준을 미리 의결하고 진행하는 이유.

–동아리연합회: 동연과 같이 자치예산과 학생회비 회계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존한 것이 아니라 이월금액이 지속적으로 학생회비 운용에 영향을 주었던 상황. 현 제도 유지가 지속될수록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는 운용 불가자금이 늘어날 것. 새로운 기준 상정 필요. 예산자치 관련 의결에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는 만큼,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이월 제도의 재편을 설명하는 것이 더욱 설득적일 것.

–예술대학: 이월 제도는 총학생회비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사용해야한다는 의미.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의 변동을 두는 것 제의.(총학생회: 예산자치제 신청이 폭등하는 특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예산 운용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을 수 있음. 기준 설정에 따라 또 다른 제한이 생겨야 하는 것.)

–사회과학대학: 예산자치제 시행 규정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총학생회: 2000년도 초반 전학대회 자료집에서 확인되나 구체적인 기준 또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학기도 존재. 정확한 설립일에 대해 알기 어려움.) 날짜 등 제약조건이 너무 많은 점이 신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기준 완화를 고민할 필요성 있음.(총학생회: 2018–1학기의 예산자치제를 함께 검토하며 느꼈던 것처럼, 모든 학생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기준을 아예 낮추기는 어려움. 예산자치제와 관련한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

원 기준을 의결하여 진행하는 이유를 고려해야 함.)

*중앙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수정된 내용
-상략-
2. 예산 배정
총 자치 예산의 범위는 해당 학기에 지급되는 총학생회 학생회의 10% 까지 사용 가능하며, 해당 학기 자치 예산은 해당 학기 학생회비 확정 후 2주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보고한다.
3. 예산의 운영
3-1 예산자치제를 통해 집행된 예산과 활동에 대해 공개한다.
3-2 한 단위에게 해당 학기 자치예산으로 책정된 총 금액의 25% 이상은 지원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해당 학기 자치예산으로 책정된 총 금액의 20%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하략-

2. 장애인권학생회 - 사회과학대학 발의(10단위 참여 중 10단위 찬성으로 안건 상정)

: 중앙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장애학생인권위원회 발족〉에 대한 전학대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중운위 이름으로 다음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 요망.

〈장애학생인권위원회 발족에 대한 전학대회 안건 상정안〉

-중략-

1.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장애학생인권위원회를 신설한다.

2.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장애학생인권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한다.

선거 준비시기를 비롯, 학내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 다수. 저번 전학대회에서 장애학생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조항을 신설한 것에 이어 장애학생을 위한 전용 구역, 단상, 자막, 통로 확보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전담할 단체가 필요하고, 장애성과 관련한 아웃팅을 꺼리는 학내 장애학우들이 소통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현재 중앙대학교는 장애학생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 또는 본인이 직접 장애를 알린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 지원하는 업무 진행 중. 본인의 장애를 알리지 않은 학우,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부분에서 참여가 어려운 학우를 고려해야 함. 학내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지원센터-학교 등을 거쳐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원센터라는 말 자체가 수동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직접적으로 요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 장애의 측면 이외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는 학생회를 비롯하여 많지만, 장애학생의 특수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기구가 없음. 한양대의 사례에서는, 졸업사정의 불편 등 장애학우의 고충을 장애학생회가 직접 진행하고 있음. 학생 자치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현재 중앙대학내에서는 같은 학과나 단과대학이 아니라면 새터 등을 가는 것 역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공간과 예산 지원을 받는 총학생회 내 특기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학생간의 네트워크 확충.

-총학생회: 장애학생위원회 '위하다' 측으로 인권복지위원회 내 국으로서 활동을 시작해볼 것 제안한 바 있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예산 등의 제반사항을 충족하고 실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 사업의 수혜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특기구로서 제언하거나 활동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문대학: 현재 인복위는 학생소수자, 인권 등의 성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인복위 산하로 장인위가 소속되는 것은 억지스러움. 인문대학에서 진행했던 소수자 관련 캠페인도 당사자성이 떨어지다보니 인식개선에서 그치기도 했음. 무엇보다 당사자성이 관련 업무에 중요한 요소임.//자연과학대학: 현 인복위에서 소수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것

보지 못함. 진행했던 인권 관련 행사 역시 외부 협력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임. 특수한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 학생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기구를 만드는 것, 소수자 관련 담론을 학생 공동체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중요. 공간과 예산의 문제는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한 이후에 논의할 문제. 더불어 인권복지의 '인권'과 장애인권의 '인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사회과학대학: 또한 특기구 내 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장애성 아웃팅의 문제가 있음.//동아리연합회: 장애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에서 비장애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사회과학대학: 합의를 통해 해결될 내용.//간호대학: 인복위 내 국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어떠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동안의 사업 방향이 특기구의 존재 목적와 의의에 적합하지 않았다면 그를 수정, 확장하여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임.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바로 특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맞는지?//사회과학대학: 행사나 사업 진행과 함께 100주년 축제 참여 보장 등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 '인권'의 이름 아래 많은 갈래의 인권이 있겠지만, 장애 역시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담 기구가 필요한 것.//경영경제대학: 논의가 있는 것은 긍정적. 그러나 일반 학우의 시각에서 인복위와 장인위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독립되어 운영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함. 인복위 내에서 기존 기반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원활한 방법. 방향성이 다르다고는 하나, 내부에서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면 되는 것. 오히려 해결하기 쉬운 문제일 것.//사회과학대학: 이번 인복위에서 그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으나, 인복위와 장인위의 특색이 다름. 실질적인 수업권을 보장한다거나 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단체가 필요.//동아리연합회: 인복위의 인권과 장인위의 인권이 다르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인지? 비장애인 학우와 장애인 학우가 학생자치로부터 받을 필요할 것들이 다르다는 것인지?(사회과학대학: 다루는 인권의 상이에 대해 말씀하시는 듯. 그동안의 인권문화제 등에서는 영화제 등을 통해 복지 수준의 인권을 다루었다고 생각.) 외부의 요구에 응답하여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에는 긍정적이나, 현재 있는 특기구의 형식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사회과학대학: 현재 위하다 안에는 약 20명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홍보국 등의 체계도 존재. 다만 아직 어떠한 특정 활동 기반이 없는 단체에 기존 특기구가 진행하는 것만큼의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문대학: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권 관련 사업이 없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조차 없음. 기존의 학생기구에는 당사자성이 없기 때문에 인식 개선 외에는 할 수 없음.//예술대학: 처음부터 총학생회 산하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예 독자적인 기구로 존재하다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그 과정을 통해 특기구가 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사회과학대학: '위하다'를 아는 사람도 적고, 중앙대학교 상황 상 지금의 형태로는 더 큰 발전이 어려움. 장애학생들이 나서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현 성평위가 성평등문화를 위해 사건을 전담하듯 장애학생인권위원회가 사업과 시설, 학교 밖 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문대학: 그냥 학생 자치단체로 남는 것 보다는 공식적인 학생 자치단체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자연과학대학: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쉬운 문제가 아닌지?//간호대학: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그러나 반폭회칙 개정역시 한 학기 이상의 긴 논의를 통해 이번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시도하는 것. 오늘 가져온 안건에 대해 짧은 시간동안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중운위의 시각으로도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자연과학대학: 당장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간호대학: 지금 사회과학대학에서 가져온 안건상정 자체는 장인위의 특기구화를 바로 진행하자는 것.//사회과학대학: 논의기간이 짧았던 것은 유감이나, 그동안 많은 단체와 언론에서 이를 다룬 바 있음.//총학생회: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아직 선출되지 않은 학생회에게 여러 보완점이 필요한 업무를 시작단계에서 인수인계하는 형식이 될 수 있음. 정당성 또는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인문대학: 임기는 1년이지만 학생회는 지속성을 가진 기구. 통시성을 가진 문제라면 이어서 논의하는 것이 맞음.//사회과학대학: 인복위 산하 국이 되는 것에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총학생회: 인준에 관여하는 것은 집행국과 특기구장 까지. 그 이외 내부 국 설치 또는 사업 진행은 기구별 논의를 통해 진행.//

자연과학대학: 공간문제 역시, 새로 지어지는 공간들에 대해 학생의 것을 가져오도록 얼마나 요구하는지에 달렸을 것.//사회과학대학: 전학대회 안건에 이 내용이 상정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짐. 학내 장애학생의 수가 적지만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람. 논의, 안건 상정과 가결까지의 기간이 불분명하여 확정해야 할 것. 문항 그대로 가게 된다면 인복위 내 장애인권국이 된다는 것인지 등도 확실히 해야 함.

–총학생회: 올려주신 안건 상정안 내용 중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 중앙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안건이 발의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논의 필요. (약학대학: '위하다' 단체 내부의 체계성이나 사업 진행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전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특기구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청사진과 내용 없이 신설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 만약 당장 이번 전학대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특기구로서의 활동을 바로 진행하게 되는 것. 준비기간을 거쳐 보완점이 개선되고 그 이후 신설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임. 아무것도 없이 일단 신설하고 이후 조율하고 보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사회과학대학: 지금까지 시설과 예산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1번과 2번의 내용 모두 장인위가 특기구로서 활동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총학생회: 논의 진행 과정 중 장인위가 특기구로서 활동하는 방법, 인복위 내 국에서 활동하는 방법, 외부 단체로 활동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아직까지 해당 부분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음.//동아리연합회: 형태와는 상관없이 장애학생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논의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임. 이번에 바로 신설하는지의 여부를 안건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2번에 있는 협의체의 목적이 뚜렷해질 것.//예술대학: 전학대회 이름으로 장인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즉 공간과 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는지?(인문대학: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보이나, 신설에 대한 합의도 되지 않았고 비공식적인 단체인데도 공간과 예산을 배정하라는 것은 맞지 않음. 사업이나 예산 확정을 논의하는 것은 기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기 어려운 것.)//사회과학대학: 위하다가 바로 장인위가 되는 것이라면 그런 논의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구성에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공간과 예산 문제는 차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 바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의로 특기구로 인준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학교 측에서 계획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인문대학: 총학생회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동아리연합회: 장인위 발족에 대해 안건상정을 하는 것이지 기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아님.)

–총학생회: 사회과학대학제서 상정해주신 두 가지 내용을 각기 의결할 것.

1.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장애학생인권위원회를 신설한다.

: 1번만 가결될 시 이번 전학대회에서 바로 설립관련 안건을 상정. → 10명 중 0명 찬성

2.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장애인권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한다.

: 2번만 가결될 시 장인위 설립과 관련한 협의 진행, 경과에 따라 합의된 구성으로 장인위 발족을 상정하여 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을 이번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 → 10명 중 7명 찬성

: 1번과 2번이 함께 가결될 시 특기구로서의 장인위 발족을 확정적으로 하고, 업무 진행을 구체화하고 진행할 협의체를 마련하여 장인위의 특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 → 10명 중 3명 찬성

=각 단위별 1표로 의결 진행, 2번 내용 수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장애인권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한다.'로 중운위 명의 안건을 상정. 대표발의자 심명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2번 안건 발의를 위한 내용 중운위 공지방에서 피드백 논의 요망.

❑ 기타 안건

1. 전학대회 명단

: 이번 주 내 마무리 요망. 좌석 구획 조정 필요. 위임장, 금요일 또는 늦어도 토요일까지 필히 제출 요망. 대리인 여부는 금요일까지 반드시 알려주실 것. 학년대표 위임은 해당 학년과 동일한 학년으로 진행必. (인문대학: 대리인은 발언권 있는지?//총학생회: 있음) 참여시 학생증 지참 요망.